

공중전화 등 통신망 '미세먼지 측정망' 된다



KT가 지난 6월 한국외국고등학교에 구축한 공기질 측정기 앞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교내 공기질을 확인하고 있다.

〈KT 제공〉

KT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위험 해소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KT(회장 황창규)는 20일 ICT 인프라 개방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에어맵 코리아(Air Map Korea)'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보유 중인 ICT 인프라를 'IoT 기반 공기질 측정기' 설치장소로 제공 ▲개방형 IoT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500만 ICT 인프라, 공기질 측정 장소로 제공 =KT는 약 500만개소에 이르는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위치한 약 450만개의 통신주, 약 33만개의 기지국, 6만여개의 공중전화부스, 4000여곳의 통신국사가 바로 그것이다.

KT가 보유한 ICT 인프라는 국민들의 생활현장 곳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측정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이 사람이 실제 호흡하는 10m 아래 위치하고 있다. 또 기지국과 공중전화부스는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촘촘히 배치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KT는 연말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500만개 ICT 인프라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기질 측정기 설치 장소로 제공한다.

◇개방형 IoT 플랫폼 구축 및 운영 =KT는 보유한 ICT 인프라를 공기질 측정 장소 제공은 물론 공기질 측정기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개방형 IoT 플랫폼을 구축, 운영한다. IoT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는 정부에 우선 제공하며, 국가 측정망에서 수집한 공기질 데이터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T는 정부와 협의해 측정된 공기질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정부가 필요 할 때에는 데이터를 일반 국민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일

KT '에어 맵 코리아' 추진 1500곳 공기질 측정기 설치 인구·기상 정보 통화량과 연계 분석 자료로 외출 여부 등 판단



KT가 실제 구축한 공기질 측정기

반인 누구나 공기질 측정기나 관련 플랫폼을 KT의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 통한 미세먼지 저감정책 지원 =KT는 ICT인프라 활용, 개방형 IoT 플랫폼 구축과 함께 공기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수집된 공기질 데이터는 KT의 통화량 기반의 유동인구 정보(성별, 연령, 시간대 등)와 공공·민간기관의 정보(기상, 유해시설 위치 등)와 결합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확산예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KT가 제공하는 공기질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정부 및 지자체의 살수정소차 운행, 천연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활용 중인 이끼 설치장소 선정, 미세먼지 확산 예측 알림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미세먼지의 확산 예측 알람은 특정 지역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데이터와 현재 바람의 방향과 속도 등의 기상정보를 연계해 미세먼지 이동경로를 예측하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예측된 미세먼지 이동경로를 시민들에게 전달한다면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야외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 및 6대 광역시 공기질 측정망 구축 및 시범서비스 =KT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공기질 측정망을 구축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내년 1분기에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주요 거점 1500개소에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하고, 공기질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다.

국내 전문업체의 협력을 받아 설치되는 IoT 기반 공기질 측정기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산화탄소, 소음, 습도 6가지 공기질 데이터를 분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다. 시범서비스는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인구가 거주하는 지역과 유해시설 밀집 지역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KT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시범서비스, 공기질 측정망 플랫폼 구축 및 향후 운영 등 'AIR Map Korea 프로젝트'를 위해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빚장 풀린 유료 인터넷 개인방송

청소년 무단 결제 피해 심각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1인 미디어)이 대중화되고 있지만, 미성년자가 성인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모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한 영상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2014년 1월~2017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152건 중 유료 서비스 환불 관련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그 다음은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제한(19건, 12.5%), 부당결제(11건, 7.3%), 서비스 불만(9건, 5.9%), 불법방송(9건, 5.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불 관련 95건 중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가 46건(48.4%)으로 절반에 달했다. 금액은 최소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 한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 자녀의 무단사용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과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치, 판도라TV, 팝콘TV, 폴티비, V라이브)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많고 미성년자 보호가 미흡했다.

팝콘TV와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폴티비와 V라이브는 잔여 유료 아이템 환불을 받을 수 없었고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일정 기간 이용하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와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아프리카TV는 일부 유료 증권방송 방송자가 번칙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해 플랫폼의 환불정책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조사대상 9개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폴티비의 경우 성인방송의 동영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이 불로그나 유튜브 동영상 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연합뉴스



한국인 하루 평균 3.3시간 모바일 앱 쓴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3.3시간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에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글이 2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글로벌 발' (Go Global)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앱 분석 기관 앱애니의 베르트랑 슈미트 최고 경영자(CEO) 겸 공동창립자는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인 앱 사용 시간이 이렇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대만인의 하루 평균 앱 사용 시간은 3.1시간, 일본인은 2.7시간으로 각각 집계됐다.

3개국 사용자의 앱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년 전보다 약 40%가량 증가했다고 슈미트 CEO는 밝혔다.

이는 모바일 게임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졌

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일본·대만의 모바일 게임 앱 총 매출(OS와 구글플레이 합산)은 80억달러(약 9조원)를 돌파하며 2015년 상반기보다 62%가량 성장했다.

제임스 샌더스 구글플레이 아시아 지역 총괄은 "한국·일본·대만은 구글플레이 상위 5개 국가 중 3개 국가"라며 "이들 국가의 개발자는 앱 및 게임 생태계를 강화하며 세계적으로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다운로드 횟수 면에서는 인도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신흥 시장의 성장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구글플레이 다운로드가 가장 많았던 나라는 인도로, 지난해 1분기보다 무려 3.3배나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2년 새 95%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